

아프리카, 브라질 에탄올 “러브콜”

앙골라 · 모잠비크, 생산기술 · 재정지원 타진 ... 가나는 생산량 확대

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식량위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잇따라 브라질에 대해 재정 ·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앙골라와 모잠비크는 최근 정부 대표단을 브라질에 보내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(BNDES)과 접촉을 갖고 브라질의 에탄올(Ethanol) 등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이전과 재정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앞서 가나 정부는 최근 제12차 UN무역개발회의(UNCTAD) 총회 참석을 위해 수도 아크라를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오 톨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, BNDES는 가나와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다.

가나는 브라질의 지원을 통해 에탄올 생산량을 확대해 유럽 최대의 에탄올 소비국인 스웨덴에 수출할 예정이다.

브라질은 가나와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과감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해 바이오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 발전 및 빈곤 탈출을 도울 계획이다.

BNDES는 현재 에탄올 부문에서 62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두 브라질의 에탄올산업에 국한되고 있다. 가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해외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BNDES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부문 투자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설 건설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4/24>